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IS IS WHERE IT ENDS

가제 : 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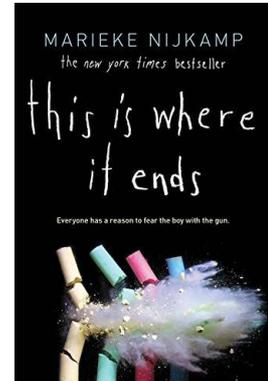
저자 : Marieke Nijkamp

출판사: Sourcebooks Fire

발행일: 2016년 1월 5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새 학기 첫 날, 학교 강당에 총을 들고 나타난 남자, 순식간에 인질이 되어버린 전교생과 교사들 “난 이 학교에 적응하고 싶었는데, 전부 다 잃고 말았어.” 한 손에 총을 들고 다른 손은 허리춤에 올린 남자가 혼잣말을 하듯 아무 억양도 없이 말했다. ‘기회’라는 뜻을 가진 어포츨니티 고등학교의 새 학기 첫날,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개학식을 마친 직후인 오전 10시에 홀연히 등장한 그 남자는 교장선생을 향해 총을 발사하고 순식간에 모두를 인질로 삼았다. 강당 문은 이미 모두 잠겨 있고, 꿈쩍 없이 그 안에 갇힌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은 묘한 웃음이 떠오른 그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다. 그 안에는 남자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도 섞여 있다. 2학년생인 남자의 여동생, 오텀도 그 중 하나였다. 엄마 없이 아빠의 무자비한 폭행에 시달리는 자신을 구해주고, 댄서가 되고 싶은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도와주던 오빠 타일러가 왜 총을 들고 저 곳에 서 있을까?

이야기는 총기 난사범이 되어버린 오빠를 바라보는 여동생과, 오텀의 곁을 지키며 남몰래 애정 관계를 유지해온 여자 친구 실비아의 시선에서 진행된다. 강당 밖에 있는 실비아의 쌍둥이 오빠 토마스과 운동장에서 한창 훈련 중이던 타일러의 전 여자친구이자 육상 선수인 클레어까지 총 네 명의 시선을 통해 이런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하나하나 드러난다.

교장 선생이 연설을 마친 시각은 오전 10시 정각이었다. “현재의 모든 선택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기대기보다 스스로를 위해 고민했으면 한다”는 짝막한 연설이 끝난 직후 강당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가려고 하나 둘씩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오전 10시 3분쯤, 강당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곳곳에 설치된 강당 문이 전부 다 잠겨 있었다. 신입생들은 재미있는 게임이라도 시작된 것처럼 킁킁대고, 여기저기서 짜증 섞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불과 2분 뒤인 10시 5분, “교장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라는 말소리와 함께 시커먼 니트 모자를 눌러 쓴 금발의 남자가 강당에 들어섰다. 앞으로 쪽 뺨은 팔, 그 손에 들린 총은 곧장 교

장선생을 겨누고 있었다.

총기로 수백 명을 위협하는 남자와 얽힌 네 사람, 폭력, 배신, 상실로 얼룩진 고통의 기억

학생들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트위터로 구조 메시지를 보낸다.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장난인지 사실인지 바로 믿을 수 없는 사태가 강당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첫 총성이 울린 뒤로 54분간 이어진 공포의 인질극, 그리고 타일러를 잘 알고 그와 관계가 있는 네 사람. 이야기는 이들 각자가 타일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씩 들려 준다. 무용수로 활약하다 가족들 곁에서 떠나버린 타일러, 오텀 남매의 엄마와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 오텀을 미친 듯이 폭행해온 아버지,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며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된 오텀과 실비아, 온 학교에 울려 퍼진 총성을 듣고 강당 밖에서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실비아의 오빠, 그리고 육상계의 유망주로 떠오른 타일러의 전 여자친구 클레어, 네 사람은 혼란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타일러와의 일들을 떠올린다. 세밀한 감정 묘사와 현실적인 인물들의 기억, 고백을 통해 사랑, 용기, 상실, 그리고 배신이 뒤섞인 온갖 사건들이 응축되어 그가 총부리를 겨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자 온라인 여성잡지 「Bustle.com」 선정 2016년 가장 기대되는 YA 소설 18권 중 하나로도 선정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리에케 니캄프(Marieke Nijkamp)는 대학에서 철학과 역사를 공부했다. 양서 목록을 추천하는 단체 'We Need Diverse Books'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십대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 'DiversifYA'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다.

제목 : PEEVES
가제 : 피브스
저자 : Mike Van Waes
출판사: Harper Collins
발행일: -
분량 : -
장르 : YA 소설



영화 <인사이드 아웃>과 『웜피키드』 시리즈의 만남, 아이들의 감정이 형상화된 ‘피브스’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서 몸은 차가운데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 이상한 상태, 스티븐은 몸과 마음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것 같은 이런 증상을 수시로 경험했다. 이럴 때면 구역질이 나서 다 토하고 싶은데 어깨만 들썩일 뿐 속에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온 몸이 덜덜 떨려서 주체를 할 수가 없었다. 몸도 힘들지만, 이 갑작스러운 상태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망함이 밀려들어서 더욱 괴로웠다. 어느 날 밤늦게 스티븐에게 이 발작 같은 증상이 찾아온 날, 엄마 아빠는 잠옷바람으로 스티븐을 응급실로 데려갔다. 하지만 병원 의사는 이제 곧 숨이 멎을 것처럼 괴로운 스티븐이나 부스스한 머리며 푸석한 얼굴로 놀라 눈이 휘둥그렇게 커져버린 부모님을 비웃듯 껄껄 웃어댔다. 진단명은 ‘공황 발작’. 재발하면 어쩌냐고 묻는 아빠에게 의사는 고작 열두 살밖에 안 된 아이가 뭐 그리 큰 스트레스가 있겠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얼굴로 처방전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 의사는 알까? 스티븐은 왜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이 앓는 병이 발생할 리 없다고 그렇게 굳게 믿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부모님의 걱정처럼 학교에서도 도통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긴장하거나 궁지에 몰리면 발작 증상이 나타났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자신을 내려다보는 친구들, 걱정하기보다 일부러 꾀병을 부린다고 몰아세우는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기만 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더해지면서 스티븐의 삶은 더욱 고달파질 조짐이 보였다. 엄마아빠가 이혼한다는 것이다.

의사와 엄마의 지시대로 프로작, 졸로프트, 리탈린, 에פק서 같은 요상한 이름이 붙은 약을 집어삼키면, 스티븐은 늘 정신이 우주 저 멀리까지 떠나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몽롱하고 붕 떠 있는 기분만 들 뿐 고통스러운 발작을 제대로 막아주지는 못했다. 스티븐은 이런 생각을 계속하다가 ‘PVZ’라는 이상한 이름의 약을 우연히 발견했다. 하지만 PVZ의 약효는 프로작 같은 약들과 차원이 달랐다. 스티븐은 물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PVZ에서 시작되고 말았다.

혼란스러운 가정 생활, 학교 생활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감정을 독특하게 그린 책

이혼을 결심한 부모님이 스티븐과 루시를 번갈아 가면서 돌보기 시작한 것이 화근이었다.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엄마가 너무 바빠서 두 아이들을 보기로 한 날 제 시간에 나타나지 못하자, 아빠는 하는 수 없이 스티븐과 루시 남매를 데리고 일터인 ‘클래리티 랩’으로 향했다. 갖가지 약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연구시설인 그곳에서, 남매는 아직 효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약 PVZ를 발견한다. 스티븐은 어쩌다 이 약을 먹게 되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바로 그 엄청난 효과가 눈앞에 나타났다. 아침부터 누가 시끄럽게 코를 고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온 몸에 털이 수북이 덮인 생명체가 스티븐 옆에 잠들어 있었다! 이 시끄러운 존재는 다름아닌 스티븐의 분노가 형상화된 것으로 드러난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스티븐의 슬픔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존재가 나타나더니 예의 없는 스티븐, 잔소리하고 남을 헐뜯는 스티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존재들이 차례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피브스’들은 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내면의 감정이 피브스라는 괴상한 생명체로 나타난 사람이 스티븐 혼자만 아니었다.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한 피브스들은 스스로 진화하고,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과 영동한 소년 그레그의 모형을 그린 『웜피키드』 시리즈가 한데 결합된 듯한 이야기로, 폭스 애니메이션(Fox Animation)을 통해 작가가 직접 각본을 쓰고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불안과 고민을 색다른 방식으로 진솔하게 담은 책이다.

<저자 소개>

마이클 반 바에스(Mike Van Waes)는 드림웍스(DreamWorks), 파라마운트 픽처스(Paramount Pictures) 등에서 각본가, 스토리 분석가로 일해 왔다. 가장 최근작인 『Hammerspace』는 워너브라더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될 예정이다.